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민형배 시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찾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오후 1시 30분부터 공연·전시·체험부스 운영

학교박청소년기획단, 축제 준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에 발맞춰 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시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지원, 기업 총수의 현장 점검, 주무 부처 장관의 기반시설 점검이 잇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반도체산업지원단을 출범시켜 부지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기업별로 전달하는 원스톱 지원창구를 열었다.

이어 7월2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평을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받았고, 곧바로 용수(8월 25일), 전력(9월1일) 공급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무회

의 의결을 받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29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꿔서라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통합특별시는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신속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반도체 산단 전체 부지가 확보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우선 활용할 수 있는 63만평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2027년 인허가·설계와 일부 부지공사, 2028~2029년 팹 건축을 거쳐 2029년 1차 팹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산단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와 연결된 새로운 산업·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살기 좋은 반

도체 도시 정주여건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한 정주여건 조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었던 데는 민형배 시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민 시장은 ‘호남에 반도체 투자가 안 될 것’이라는 일각의 회의론과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 9월10일 ‘반도체·AI 대전환 국제포럼’에서 “기업의 투자보다 행정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상공회의소 경제포럼에서는 “기업이 호남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학습된 회의론’을 깨자고 호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재정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기업 투자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며 산업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워즈오토 ‘최고 엔진’ 수상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15일(목)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워

즈오토(WardsAuto)>가 선정한 ‘2026 워즈오토 최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Wards 10 Best Engines & Propulsion Systems)’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최초 적용된 현대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뛰어난 성능과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이번 수상으로 2008년 1세대 제네시스(BH)의 가솔린 4.6L 타우 엔진이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 20회의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내연기관 차량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아우르는 우수한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오토가 1995년부터 매년 선정해 온 ‘최고 10대 엔진’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전동화 추세에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9년부터 수상 명칭이 ‘최고 10대 엔진(10 Best Engines)’에서 ‘최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10 Best

Engines & Propulsion Systems)’으로 변경됐다.

올해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에 탑재된 26개 파워트레인을 대상으로 워즈오토 심사위원단이 출력, 토크, NVH 성능, 효율성,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개의 엔진 및 동력 시스템을 선정했다.

또한 구동모터를 활용한 주행특화 기술인 ▲E-라이드(E-Ride) ▲E-핸들링(E-Handling)

▲E-EHA(Electrically Evasive Handling Assist) ▲e-DTVC(Electric Assisted Dynamic Torque Vectoring Control) 등이 탑재돼 승차감과 주행 성능이 향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최고 출력 334마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가 14.1km/ℓ(2WD, 18인치 휠 기준)에 달해 대형 SUV임에도 뛰어난 효율성을 확보했다. /이가영 기자

